

공자의 전 사상

정 단 비

(서울대학교 동양철학 대학원)

I. 서론

어느 사회에나 그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기 마련이다. 이는 이상적인 인간이란 어떠한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는가는 물론, 그러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또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포함한다. 한국인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孔子가 『論語』를 통해 제시한 군자의 모습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2천 5백년을 걸쳐 이어져온 孔子의 가르침, 그리고 조선 중기로부터 7-800년을 한국인의 문화 기반이 되어온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현대로 접어들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효의 가치가 흔들리고, 학문이 예전의 매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한국인은 더 이상 도덕적인 이상을 향해 나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孔子는 인간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孔子는 인격신인 天¹⁾을 숭앙한 종교인이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는 天의 벌을 두려워하였는가? 아니면 우주의 이치인 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이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1) 天을 하늘로 번역하지 않은 것은, 한국인에게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늘과 중국인의 신앙 대상인 天은 마땅히 그 의미와 역할이 다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개념상의 혼란을 빚지 않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天은 번역하지 않고 두었다.

다했던 것인가?

論語를 통해 孔子가 주장하는 天의 성격과 인간이 天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본 이후, 孔子 자신이 天과의 관계에서 기대하고, 또 얻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孔子가 天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확고한 德의 기준을 가지고 있던 孔子가 그 기준을 天이라는 중국 기존의 신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사상을 관철시키려고 했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孔子의 天이 인격신의 모습도 보이며 동시에 우주적인 도덕적 원리이기도 한 것은, 둘 다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임을 주장하려 한다.

II. 孔子와 『論語』

孔子는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던, 유가의 첫 번째 체계적인 사상가이다. 그는 직접 저술을 남기지 않았으며, 六經을 편집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알 수 없다.²⁾ 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孔子의 삶과 언행에 대해 비교적 세세한 사항까지 밝히고 있는 『史記』의 「孔子世家」 역시, 그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³⁾

그러므로 그의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언행을 적어 편집한 『論語』밖에 남아 있지 않다. 『論語』는 20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 신빙성에 대한 논의가 많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孔子를 연구하는데 『論語』가 최고의 참고자료임에는 틀림없다는 점에는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고 있다고 Creel 은 밝힌다.⁴⁾

본 논문에서는 주로 『論語』를 통해 孔子의 사상을 분석할 것이며,

2) 크릴, 이성규 역, 『孔子-인간과 신화』, (주)지식산업사, 1983, p.121.

3) Creel, H.G.,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John Day Company, 1949, p.7(한글본 쪽수는 크릴, 영어본은 Creel로 표기).

4) Creel, Appendix, *The Authenticity of the Analects*, p.291.

그 중 孔子의 天 사상에 대한 것은 孔子가 직접적으로 天을 언급한 문장을 주로 인용하되, 제자들이나 후대 학자들이 孔子의 天에 대해 논한 것 역시 기반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Ⅲ. 자체의 성격보다는 인간과의 관계로 정의되는 『論語』의 天

孔子는 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그 횟수도 제약되어 있다. 그러므로 孔子의 ‘天’의 성격에 대한 논의⁵⁾는 그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孔子가 天에 대해 자세하게 논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 天은 인격신인가?

(1) 의지의 주체로 사용되는 天

풍우란은 『論語』에서 孔子가 天을 언급하는 문장들이 天을 의지의 주체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孔子의 天은 인격신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세한 근거를 들지는 않는다. 그는 논어의 3:13, 6:26 등의 문장을 예로 들어 天이 여러 감정과 판단의 주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인다. 풍우란은 孔子가 天과 上帝를 동일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Schwartz는 天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일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다.⁶⁾

그러나, 의지의 주체로 언급된다는 이유만으로 上帝와 동일한 존재임을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풍우란과 Schwartz 모두 문법에 의거한 빈약한 근거 이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줄리아 칭 역시 『論語』는 그 이전 시대의 天에 대한 믿음에 비교하였

5) 풍우란은 그의 저서 『중국철학사』에서 중국 철학 내의 天의 의미를 物質之天, 主宰之天, 運命之天, 自然之天, 義理之天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論語』에서 볼 수 있는 孔子의 天은 物質之天과 主宰之天 이외에는 언급이 없다고 단정 짓고 있다. 풍우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까치, 1999, 상권 p.61.

6) Schwartz, p.123.

을 때 ‘天的 침묵을 말한다’고 지적하였다.⁷⁾ 공자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2) 天의 성격에 대한 언급의 부재

孔子는 顏回的 죽음 앞에서 天을 부르기도 하고(11:18) 자신을 알아줄 단 하나의 힘으로서 天을 찾기도 하지만(14:37), 天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은 없다. Julia Ching은 이에 대해 ‘孔子의 『論語』에는 [...] 神에 대한 빈번한 언급을 배제한 채, 인간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⁸⁾고 평가한다.

그는 天을 만백성의 부모로 칭송하지도 않으며, 만물의 법이 그에게서 나왔으며 ‘사랑의 덕’의 근원이 된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孔子의 天은 별다른 성격이 없다. 공자는 ‘새로운 신학을 구축’하지는 않은 것이다.⁹⁾ 孔子는 이전의 중국 사상에 이미 스며들어 있던 天에 대해 논하는 것이었으므로 天의 성격에 대해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論語』 전체에서 그는 분명 天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子貢曰 夫子之文章可得而聞也，夫子之言性與天道，不可得而聞也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문장은 들을 수 있으나, 선생님이
(인간의) 성품과 天의 도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수가
없다’(5:12)

이 문장에서는 그의 조심성이 잘 드러난다. 孔子가 만약 만백성의 아버지로서의 天을 말한 것이었다면 그가 굳이 말을 아끼거나 질문을 회피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가 天을 언급한 문장들에서도 天 자체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 그러나 天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며, 분명 그 이전까지의 天人關係와는 다른 모습이 있다.

7) Julia Ching, 변선환 역, 『유교와 기독교』, 분도출판사, 1994, p.167.

8) Ching, p.167.

9) Ching, p.229.

2. 天人關係 — 행동으로 기도하다

(1) 鬼와 인간의 관계

『論語』에서 孔子는, 鬼는 자신에게 제사지내는 이의 이익을 챙겨주는 존재, 天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자를 지지하는 존재임을 공자는 구분하여 밝히고 있다.

‘非其鬼而祭之 諂也’

자기 집안의 鬼가 아닌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이다(2:24).

제사를 지내는 데 공자에게 중요한 것은 禮였다. 예를 어긴 제사는 아첨이다. 아첨은 자신에게 걸맞지 않는 이익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윗사람에게 부당하게 칭찬이나 선물을 바치는 행위이다. 鬼에게 부당한 칭찬이나 선물을 바친다면, 그 제사의 목적이 ‘이익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王孫賈 問曰 與其媚於奧 寧媚於竈 何謂也

왕손가가 묻기를, ‘아랫목 鬼에게 아첨하느니 아궁이 鬼에게 아첨하는 것이 낫다고 하니 어찌된 말입니까?’(3:13)

어느 쪽이 ‘낫다’라는 평가는 어느 쪽에게 아첨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집안의 중심인 아랫목을 버리고, 음식이 나오는 아궁이의 鬼에게 아첨한다면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사를 통해 맺어지는 인간과 鬼 사이의 관계이다. 왕손가는 이를 빌어 ‘권력을 잃은 주나라의 예에 충실한 것보다는 실익을 추구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요’라고 孔子를 떠본 것이다. 鬼에게 드리는 제사는 이렇듯 각 개인의 계층과 역할과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이익을 상징하였다.

(2) 鬼 위의 神, 神 위의 天

山川의 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鬼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

는 것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다.

子謂仲弓曰 犁牛之子 騂且角 雖欲勿用 山川其舍諸

孔子가 중궁에 대해 말하되, ‘얼룩소가 낳은 송아지라도 붉고 뿔이 (바르게) 나면, 비록 (사람이) 사용하고 싶지 않더라도 山川이 그를 버려두겠는가?’ (6:4)

子疾病 子路請禱 子曰有諸 子路對曰 有之 誄曰 禱爾于上下神祇 子曰 久之禱 久矣

孔子가 병이 나자 자로가 기도하기를 청했다. 孔子가 말하기를 ‘(그런 예가) 있냐?’ 자로가 대답하여 ‘있습니다. 誄에 말하기를 “위아래의 하늘¹⁰⁾과 땅의 神에게 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孔子는 말하였다 ‘구의 기도는 오래되었다.’(7:34)

山川은 인재를 알아보므로, 아버지가 어떤 인물이었던가는 상관없다. 神祇은 죽기 전에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孔子가 자신의 기도는 ‘오래되었다’라고 한 것은 그의 기도가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Creel은 추측하고 있다.¹¹⁾

행위를 통해 天의 기준에 충실한 것만이 인간과 天의 올바른 ‘관계’임을 믿었던 孔子에게는 天의 구체적인 성격보다는 天을 따르는 인간, 그리고 인간을 판단하는 天만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天이 인간에게 기준을 알려주며, 그 판단의 내용을 상벌을 통해 전달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 孔子에게 있어 天人 관계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3. 天人關係의 유지

(1) 天命을 내리지 않는 天

孔子는 분명 ‘天命’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으나 孔子가 이를 天에게

10)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함께 나열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하늘의 신’이 天과 동격으로 쓰인 것이라 ‘天’ 대신 ‘하늘’을 사용하였다.

11) Creel, p.116.

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천이 文王에게 내려와 직접 말을 곁머 은나라를 칠 것을 명한다는 것은 Schwartz도 Ching도 그 저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도덕지침을 전달하는 천은 분명한 인격신이며, 인간 세계의 모든 도덕률은 天命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孔子는 ‘天何言哉?(天이 말을 하더냐?)¹²⁾’라고 질문하며 천은 말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설명하며, 15세에 시작한 학문의 길에서 50이 되자 天命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¹³⁾ 그가 학문에 뜻을 두고, 바로 서고, 혹하지 않으며 귀가 순해지는 것은 모두 그가 학문을 통하여 도덕적인 자아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그가 天命을 알았다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 보인다. 그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간이라면 갖춰야 할 ‘도덕률’을 파악한 것이다.

孔子는 ‘天生德於予¹⁴⁾’라고 천이 天命을 그에게 남긴 과정을 표현하였다. 기준은 孔子에게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孔子는 그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과 타인의 행위를 판단하면 그것이 덕에 의한 판단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孔子의 천은 모세의 야훼처럼 산 꼭대기에서 돌 판에 율법을 조각하여 인간들에게로 내려 보내지 않았다. 인간은 도덕률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낼 수 있다. 천은 이를 조용히 판단할 따름, 말이 없다.

(2) 상벌을 주지 않는 天

훌륭한 삶을 산 사람에게 천은 어떠한 상을 내리는가? 천의 뜻에 어긋나면, 벌을 받는가? 孔子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하다. 예를 들어, 孔子는 공부를 열심히 한 이후에, 아니 군자라고 불릴만한 인격을 수양한 이후에도 관직에 등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다.

12) 『論語』 17:19.

13) 『論語』 2:4.

14) 『論語』 7:22.

子曰 君子謀道 不謀食 耕也 飡在其中矣 學也 祿在其中矣 君子憂道 不憂貧

孔子가 말하였다. '군자는 도를 구하여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다. 농사를 짓더라도 굶는 수가 있으며, 공부를 하면 녹을 얻는 일이 있다.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15:31)

孔子가 농사와 공부를 대가로 사용한 것을 보라. 농사야말로 天이 권장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天이 노동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상벌을 내놓지 않는 것은 당연한 예로 언급되고 있다. 군자가 구하는 것은 도이므로 군자가 얻는 것도 도일뿐, 녹은 그 누구도 약속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인간은 애초에 어떤 방식으로 도덕률을 알아낼 수 있으며, 자신이 영위하는 '올바른 삶'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IV. 소통 없이 天의 의지를 확신하는 孔子

孔子는 자신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바로 서있음을 확신하여 그를 기준으로 타인을 비판하고 칭찬하며, 자신의 '이상'의 절대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孔子는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확신을 하고 있으며, 天과 그 사이에는 어떠한 '소통'이 있었는가?

1. 天은 孔子를 알아주는가?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孔子가 말하기를 '天을 원망하는 것도 사람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일을 공부하여 天의 이치에 닿았으니, 나를 아는 것은 天밖에 없다!' (14:37)

孔子는 아무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함이 아쉬웠던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진정으로 옳다는 것을

실천으로 확인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를 인정하는 제후나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정치를 통해 백성의 민심을 얻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天이 그를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은 그에게 있어 유일한 권위예의 호소이다. 그러나 天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孔子 스스로의 판단이지 않은가? 天은 그와 어떠한 의사소통을 한 일이 없었다. 孔子가 天의 의지를 판단하고, 天의 의지는 孔子를 지지한다면, 이는 일종의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 孔子의 사상이 건전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권위는 결국 孔子 자신뿐인 것이다.

2. 天은 孔子의 길을 보장 하는가?

孔子는 天의 의지에 호소하여 신변의 안전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혹은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였다.

子曰,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

孔子가 말하길, ‘天이 나에게 덕을 주셨으니 환퇴가 나를 어찌 하겠는가?’ (7:22)

子畏於匡曰 [...]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

孔子가 광 땅에서 두려워하며 말하길 [...] ‘天이 이 文을 버리면 후세 사람들이 이를 배우지 못할 것이다. 天이 이 文을 버리지 않는다면 광인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여기에서 天이 보호하고자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덕과 문이다.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공자가 있다. 공자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 효과적으로 天의 의지를 세상에 펼쳐야만, 그를 살려둔 天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를 지지할 제후를 얻지 못하였고, 아꼈던 제자인 안회마저 죽음을 맞이하였다. 정치, 혹은 교육을 통하여 하늘의 덕을 알릴 기회는 사라졌다.

그렇다면, 도덕의 절대적인 옹호자인 天에게 버림받은 공자는 어떤

가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며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孔子가 자신의 ‘덕’을 의심하지 않으려면 그는 天의 의지가 진정 존재하는가를 의심할 수 있다. 天은 孔子의 ‘도’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덕적이지 않다. 그러나 ‘天이 나를 버렸구나’라는 말은 사실 어떠한 판단에서도 벗어나있는 말이다. 天의 부도덕함, 혹은 불공정함을 비난하는 말도 아니며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자신이 天을 원망하지 않는다고도 하였다.¹⁵⁾ 그의 이렇듯 모순적인 태도는 어디에서 기여하는가?

3. 孔子의 견해를 뒷받침하며 이를 반영하는 天

孔子가 만약, 天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기반하고 있는 인간이었다면,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던 응답을 보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좌절은 컸을 것이다. 그러나 孔子는 애초에 天의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天의 의지를 예측한 사람이었다. 그는 天에서 도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률을 天에 투영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天의 의지는 孔子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天이 그를 지지하는 어떠한 행위를 보이지 않은 것도 그의 판단에 대한 그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는 것이다.

‘天의 의지를 믿는 孔子’라는 요소를 제거한 후 孔子와 天의 관계를 보면, 天의 권위에 의거하여 자신의 판단을 관철시키려는 孔子를 볼 수 있다. ‘予所否者 天厭之 天厭之’라는 孔子의 외침은 ‘天이 나를 보는데 내가 잘못된 일을 하라?’라는 호소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孔子의 행위가 잘못된 바가 없음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天은 孔子가 원하는 것 이외의 것을 원하는 일이 없다. 孔子는 天의 의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느라 고뇌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孔子는 아버지 같은 天의 사랑이나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내리는 그의 명에 대해서 논한 적도 없다. 天은 그에게 필요한 때 뒷받침이 되어주는 권위 이외에 무엇인가? 孔子와 天의 진정한 관계는 어떤 것인가?

15) 『論語』 14:37.

Schwartz는 『論語』에서 天의 인격적인 모습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하면서도, 『論語』의 한 구절에서만은 孔子의 天을 'impersonal order'로 파악할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子曰 子欲無言

孔子가 말하기를, “나는 말을 안 하련다.”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학문을) 전합니까?”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孔子가 말하기를 “天이 무슨 말을 하더냐? 사계절이 돌아가고 만물이 생겨 자랄 뿐 天이 무슨 말을 하더냐?”(17:19)

'사계절이 돌아가고 만물이 생겨 자라'도록 하는 것이 天이라고 孔子가 말하고 있으니, 이는 天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시한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이 법칙을 모방하려는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가 孔子와 天의 관계의 요지라고 여기는 듯 보인다.

위의 孔子의 언변에서의 초점은 天이 아니라 곧 孔子라는 Schwartz의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孔子가 天을 모방하려는 의도였는가는 의심스럽다. 天이 말이 없다는 것은 孔子가 제자들의 깨달음을 위하여 굳이 말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반증하기 위해 도입된 문장으로, 이 언변 내에서도 天은 孔子에게 종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子畏於匡 顏淵後 子曰吾以女爲死矣 日子在 回伺敢死

孔子가 광나라에서 두려워할 때, 안연이 뒤쳐졌다. 孔子가 말하길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 안연이 말하길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광 땅에서의 같은 상황 하에서 孔子는 天의 의지를 언급하였는 데 반해, 顏回は 孔子를 두고 자신이 '감히' 죽을 수 없음을 말하였다. 孔子 역시 天의 기적에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뜻을 펼치기 전에 허

무하게 죽을 수 없음을 다짐했던 것일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석은 孔子가 천의 초월적인 힘을 받고 있는 듯 보이는 구절을 해명해주는 것은 물론, 孔子와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天 : 孔子 = 孔子 : 顏回'라는 공식이 성립한다는 점이다. 이는 孔子가 말없는 天에게서 자신이 배우는 것을 제자들에게 앞으로 말이 없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명한 것과는 일맥상통한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과 天을 동일시하여, 효율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고 있다.

孔子는 天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동시에, 天을 모방하는 孔子보다는 孔子를 반영하는 天의 상을 만들어낸다. 孔子가 불 앞에서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손가락이라면, 天은 스크린에 투영된 커다란 그림자이다. 둘은 동일한 형태를 취하지만, 손가락 자체보다 그 그림자는 훨씬 커지고 환상적인 물체로 그려지므로 구경꾼들의 눈길은 모두 그림자에 쏠린다. 그러나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손가락의 기술이지 않은가? 天의 의지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孔子가 없으면, 天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孔子는 광인이나 환태를 두려워하며, 마치 자신이 天의 도구임을 강조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孔子가 없으면 天의 뜻도 전달될 수 없음을 확실히 표현하였다. 天이 의지와 능력을 지닌 존재라면, 孔子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인물에게 덕을 넣어줄 수 있다(生德於人). 그러나 孔子가 죽는다면 후세에게 전달될 수 없는 文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天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孔子의 뜻임을 알 수 있다.

V. 孔子의 사상에서 天의 역할

1. 왕조와 계급을 초월하는 天의 힘

帝는 天을 통치하는 인격신으로, 사실은 은나라 왕족의 조상들(선왕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후에 단수 취급된 것이라고

Creel은 그 유래를 밝히고 있다.¹⁶⁾ 은나라가 붕괴되고 주나라가 정권을 잡아 天下를 통일하면서, 그 권력의 정통성을 증거로 그들은 '天'이 주나라를 선택하였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는 혈연으로 맺어진 神과 정권의 관계를 '德과 天命'으로 연결된 것으로 재정립한 것으로, 이로 인해 天命을 받아 정권을 잡은 자는 덕을 갖춘 것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¹⁷⁾

주나라의 문화를 따르겠다고 선언한 孔子에게, 주나라의 '天' 개념의 변환은 매우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天의 통치 영역은 혈연으로 맺어진 후손을 넘어서서 전 인류를 포함함이 밝혀졌으며, 덕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天子라고 할지라도 天의 잣대 하에 있으므로 天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에게 백성을 맡긴다는 이론에 이의를 제기할만한 사람은 없을 테다.

시대와 왕조, 계급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힘을 미치며, 아침하는 세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보다 자신의 사상을 관철시키는 데 더 효과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孔子는 바로 이 天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적용한다. 孔子는 왕족이 아니며 젊은 시절 하찮은 일까지 해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天은 그의 덕을 보고 찾아온 것이니, 더 이상 天은 天子만이 소통 가능한 지고신이 아니라 도덕이 있는 자라면 지지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2. 덕으로 다스리다

孔子는 다른 무엇보다도 덕이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다. 덕이 있는 자를 왕으로 추대하는 옛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통치자에게 덕을 붙여넣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 정권을 잡은 자가 이익보다는 덕을 추구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덕을 갖춘 자에게 절대적인 힘인 天이,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 곧 '天下'를

16) 크릴, p.132.

17) 송영배, 『중국사회사상사』, 사회평론, 1998, p.40.

내린다는 사상이 적절했다.

Creel은 孔子의 天은 비인격적인 원리로서 孔子 스스로는 帝를 언급하지 않으며,¹⁸⁾ 이후에 중국의 고유 사상과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¹⁹⁾ 그런데, 주 왕조가 天의 직접적인 방문으로 天命을 받았음을 주장한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백성들의 天에 대한 믿음을 이용해 신뢰를 얻으려 한 시도를 알 수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성공한 것이었다. 이렇듯 인격신인 天에 대한 실재하는 믿음을 孔子 역시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크릴이 주장했듯이 孔子 이후 세대가 孔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고유 사상과의 결합’이 벌어졌다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이지만 않은가?

3. 孔子의 포부 — 백성을 교육하기

天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힘으로 인간에게 도덕률을 실행시키는 힘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도덕률의 근원은 天에 있는 것이 아니라 孔子에게 있다. 그러므로 孔子는 자신의 도덕에 대한 기준이 天의 통치만큼 보편성을 갖기를 바란 것이었다. 물론 그러기 위한 방편으로 그는 먼저 통치자들을 납득시키려고 하였으나, 그가 정치를 하려는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백성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子適衛 冉有僕 子曰庶矣哉

孔子가 위나라에 갔다. 염유가 말을 모는데 孔子가 말했다. ‘백성이 많구나.’

冉有曰既庶矣 又何加焉 曰富之

염유가 말했다. ‘백성이 많은 다음에는 무엇을 더 해줘야합니까?’

‘부유하게 해라’

曰既富之 又何加焉 曰教之

‘부유하게 된 다음에는 무엇을 해줘야합니까?’

‘가르쳐라’ (13:9)

18) 크릴, p.135.

19) 크릴, p.218.

孔자가 정치를 꿈꾼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을 편하게 하고 생존을 보장하여 그들에게 덕을 가르치려는 것이었다.

그는 분명 주나라가 백성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사용한 天의 개념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나, 그의 목적은 사뭇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만민에게 적용 가능한 도덕의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하여 天자는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편안한 삶을 보장 받아 그 기준에서의 덕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통치자의 욕심을 꺾을 수 있으며 만백성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위로 그는 天을 선택했으며, 天을 내세워 그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한 바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다 하며 이익이 아닌 ‘덕’을 추구하는 삶이었다.

VI. 결론

孔자는 말이 없는 天이 행동으로 보인 天命, 즉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도덕률이 세상에 알려지려면 곧 자신을 통해서 한다는 확신을 보이며, 天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므로 뜻을 펼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는 듯 보인다. 그런데, 孔자는 이러한 믿음이 좌절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덕을 의심하거나, 天의 덕을 의심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니, 과연 애초에 그러한 믿음이 ‘天의 의지’에 대한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孔자에게 있어서 天이 인격신이었다면 이는 孔子 자신의 신앙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른 도덕률을 타인이 실천하도록 이끌기 위한 권위로써였다. 그는 혈통이 아닌 덕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天에 대한 믿음에 호소하여, 덕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있어서 ‘天’이 상징하는 바는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이치’였다. 그는 자신에게 내재한, 오랜 학문을 통해 스스로 터득한 그 이치에 의해 스스로의 행위와 타인의 도덕성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길희성이 밝히듯이, 神이 없는 세속적인 인간관만으로는 ‘인간이 은혜를 입고 책임을 저야 할 인간 위의 어떠한 상위적 실재나 질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화로운 삶은 어렵다.²⁰⁾ 孔子 역시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으므로, 天의 권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덕 있는 자를 선택하는 인격신에 대한 중국인의 믿음에 호소하였다. 이렇듯, 孔子는 인격신으로서의 天, 그리고 우주의 이치와 원리인 天의 양면을 모두 인식하고 이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시대의 중국인에게 이미 존재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孔子가 天의 권위에 호소하여 인간에게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것은, 天이 인간의 행위를 빠짐없이 살펴보며 판단하듯 스스로의 행위를 저울질하는 도덕심이다. 天에 대한 믿음은 孔子에게 있어 그 시대를 위한 도구였다. 그러므로 새 시대에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할 것이다. 孔子 사상의 합리성을 호소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에 인한 정신적 건강을 강조함으로 새 시대에 적용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인간이 인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의 당위성, 그리고 스스로를 天과 동일시하는 ‘자기 개발’의 매력은 시대를 초월한 것이리라고 예견해 본다.

20) 길희성, 「한국사회와 유교적 최소주의」, 『종교연구』 31(2003), p.72.

참고문헌

원전과 번역

『論語』, 學民文化社.

朱熹, 성백효 역, 『論語集註』, 민족문화연구회, 1996.

司馬遷, 정범진 역, 『史記』, 까치, 1994.

송영배, 『중국사회사상사』, 사회평론, 1998.

———, 『제자백가의 사상』, 현음사, 1994.

풍우, 김갑수 역, 『天人關係論』, 신지서원, 1993.

풍우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까치글방, 1999.

크릴, 이성규 역, 『孔子-인간과 신화』, 지식산업사, 1983.

핑가레트, 송영배 역, 『孔子的 철학』, 서광사, 1993.

Creel, *Confucious-The Man and the Myth*, John Day, 1949.

Schwartz,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Belknap
Harvard, 1985.

논문

길희성, 「한국사회와 유교적 최소주의」, 『종교연구』 31(2003), 55-98.

김충열, 「天人關係를 둘러싼 논쟁의 기초」, 『논쟁으로 본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4, 3-45.